

제 105회 목포 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단기 4293년 5월 18일 하오 3시 40분

2. 폐 의: 단기 4293년 5월 18일 하오 6시

3. 장 소: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임시 의장 김상대, 의장 김경인

5. 출석인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종국 외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외 서무과장

7. 의사일정

◆보고사항

(1) 제 104회 제 1, 2차 회의록 통과

◆부의사항

(1) 목포시 교육 위원회위원 선거의 건

(2) 의회의장 보선의 건

(3) 의회부의장 보선의 건

(4) 회의 각 상임 위원장 보선의 건

(5) 목포시 중요 재산 처분안

(6) 단기 4293년 제 2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출경정 예산안

(7) 단기 4293년 제 1회 목포시 국민 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8. 토의사항

◇사회 김 상 대 의원

- 임시 의장 선거를 선고하다.
- 투표결과 : 김상대 의원 - 9표, 김성삼 의원 - 1표, 명남철 의원 - 3표
김남진 의원 - 1표, 기권 - 1표

◇사회 김 상 대 의원

- 임시 의장에 김상대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다.

◆보고사항

- 간사 김귀석 5월 17일자로 박 시장이 사표 제출하였음을 보고하다.
- 제 104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서기 주도식 낭독하다.

◇김 경 인 의원

- 본인의 발언 중 의장 사표 수리하되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사표는 반환(반려)하도록 원내 결의로써 하자는 원내 결의가 누락되었으니 삽입할 것을 요청한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기타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하다.
- 제 104회 2차 회의록 통과.
- 서기 주도식 낭독하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법정 시간이 되어 연장에 이의 없음으로 연장을 선언하다.

◇이 정 권 의원

- 교육청 관계본인 발언 중 영선비 240,000환 재원 포착여하로 미징수액은 1억으로 수정 요청한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그 외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한다.

◇조 양 순 의원 신상 발언

- 민주당 당적을 12년간이나 해방 후부터 가지고 있어 민주당과는 인연이 깊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를 밝힘과 동시 복당 하고자 한다. 4년 전에 시 의원에 입후보

하여 각종 선거 등에 진두지휘를 하였다. 자유당에서 방해가 심하였고 본인을 잡아 가려고 조사도 심하였으나 본인의 과오란 조금도 없었다. 그러니 자식에게 빼쳤다. 자식이 동광고교에 취직하였으나 민주당 바람으로 결국 퇴직하여 할 수 없이 해남 남국민학교에 복직 그 후, 완도중교로 진출되었으나 병역 보류에 말썽을 일으켜 목포 형사에게 연행되며 정책적으로 형무소에 수감되니 80당년의 노모에게 미안하였다. 사찰계장을 만나 본인의 태도를 결정하고자하니, 자식을 석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말만으로 믿지 않기에 탈당원서 지참 재차 방문하였으나 신통치 않기에 결국 목일(목포일보)에 탈당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만족치 않고 친구파에 욕을 하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라기에 본인은 거절하였다. 서장을 만나니 지청장을 만나야 된다고 하기에 이정권 의원의 소개로 유정두씨를 방문 사정하였으니 그 익일에 자식이 석방되었다.

그 후, 자중자에 하였다. 신상문제로 발언을 하고싶지 않았으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 위원선거에 신분지상에 「절파」(변절파)가 있고 조양순 복당 이정권 의원 민주당에 입당하였으니 터무니 없는 말이 들린다. 그래서 복당원서 제출하고 민주당에 입당할 것을 선포한다.

◇김 상 태 의원

- 본인은 민주당의 조직부장이나 조 의원 입당에 있어서는 상의한바가 없고 현재는 민주당 의원일 뿐이다. 교육위원회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 또는 학교를 상대로 각종물품을 「뿌럭커」한 자 등이 나오니 곤란하여 아즉 선정을 못하였다. 그러니 교육위원선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하련다 (퇴장보류)

◇정 응 표 의원

- 김상태 의원의 말이였다. 4.19이후 사퇴하고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다같이 느끼는 바이니 시정의 공백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금일에 이르렀다. 교육위원선거에 있어 완전 타합은 못 보았으나 계속 타합하면 성립되리라고 보니 퇴장 등을 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재차 의논하도록 본회의를 정회함이 여하한지 참고로 말한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이의 없음으로 하오 5시까지 정의할 것을 선언한다.

(하오 4시 27분)

◇김 상 대 임시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5시)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선거를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교육위원선거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여야 할 것이니 감표위원을 선정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과 삼청이 있어 표결한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감표의원으로 김상태, 정응표 의원을 지명할 것을 투표한 결과.

문재근 - 14표, 무효 - 1표

김동현 - 14표, 무효 - 1표

정대연 - 14표, 무효 - 1표

손용기 - 13표, 무효 - 2표

나달수 - 14표, 무효 - 1표

◇김 상 대 임시 의장

- 교육위원으로 문재근, 하동현, 정대연, 손용기 및 나달수씨가 당선 되었음을 선언함과 아울러 12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5시 7분)

◇김 상 대 임시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재석 14명)

◇김 상 대 임시 의장

- 의회의장 보선안 상정하다. (김삼성, 김경인 및 정응표 의원 퇴장으로 재석 인원 11명)

◇임 석 희 의원

- 감표위원을 선정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의장선거 결과 : 김상태 의원 - 2표, 김경인 의원 - 6표
조양순 의원 - 2표, 기권 - 1표

◇김 상 대 임시 의장

- 김경인 의원이 의장 당선 되었음을 선언하다.

◇김 상 대 임시 의장

- 부의장 선거를 선언하다.
- 부의장 선거 결과 : 김상태 의원 - 7표
기권 - 4표

◇김 상 대 임시 의장

- 부의장에 김상태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다.
- 김경인 의장 입장하다.
- 정응표 의원 입장하다.

◇김 경 인 의장 인사

- 4.19 혁명 이후 거반 의회시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등이 사표를 제출하였을시 의장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표를 수리하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사표는 공백상태를 타개키 위하여 보류할 것을 주장하였으니 일률적으로 사표가 수리되어 금일 의장선거 결과 이 사람이 당선 된 것은 세파의 동향일 것이다. 명령을 달게 받아 열과 성을 다하며 맡은바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가일층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의장에게 소신의 말씀을 드리고자한다. 재적 16명 중 강영락 의원이 결석
중으로 민주당 의석은 2명 뿐, 산업분위장을 제외한 전 간부를 자유당이 독
차지하여 거반 그분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당적이 자유당으로써 부정선거
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다른 과오가 있는 것은 아니라 부정선거 결과
4.19혁명이 일어났으나 민주당에서 쟁취한 것은 아니라 조 의원의 발언이 가
슴이 쓰라렸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나 무사공평하고 공명정대한 시의
회의 운명을 의장에게 바란다.

- 김삼성 의원 입장하다.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5항 상정을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상정함에 있어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한바 만
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6항 상정을 선언하다.

◇사회과장 박 찬 대

-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김 창 희 의원

- 본 건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이 제반 절차를 생략하
고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친 결
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부의안건 제 7항 상정을 선언하다.

◇사회과장 박 찬 대

-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이 정 권 의원

- 가능한한 말을 얹으려 하나 유달산 식수관계는 이내 공사가 끝난지 오래 되었으며, 국민주택 관계 추경에 있어서는 현금이 지금에 영달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여하, 법에 의한 공정한 사회를 부탁한다.

◇김 경 인 의장

- 집행부에서 사무적인 착오일 것으로 보니 이해하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본인이나 다른 의원들도 잘 이해했을 것으로 본다. 본 건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조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삼청한다.

◇이 정 권 의원

- 의안을 명일해야 배부하였다. 급시(急施)안건이 안된다. 구태의연한 태도와 그런 정신을 버리라 (장내소연) 부의안건 제 7항을 동의하다. 표결에 부처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김 경 인 의장

- 폐회를 선언하다.

(하오 6시)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날인함

단기 4293년 5월 19일

시의원 명남철

시의원 박두순

작성자 서기 배문봉